

“경기도 여성기업 지원 정책 부족”



고은정(오른쪽) 도의원은 27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여성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여성기업 지원 사업의 남·북부 편차를 해소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고은정 경기도의회 의원 “여성기업 판로개척 지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민주당, 고양10) 의원은 27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여성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여성기업 지원 사업의 남·북부 편차를 해소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 여성기업 실태조사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2개월 동안 경기도에 위치한 제조업·지식기반서비스업의 여성기업 임원급 직원 320명을 대상으로 시행했다. 주요 내용은 경영활동의 긍정·부정 요인, 애로사항, 향후 경영계획, 선호 정책 등이다. 고 부위원장은 “경기도 여성기업은 전체 기업의 40%를 넘는다. 그에 비해 여성기업을 위한 지원 정책이 부족하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기업에 필요한 기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R&D 지원과 수요자 확보를 위한 판로

및 수출지원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도록 관련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줄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고 의원은 여성기업 마케팅 지원 사업 남·북부 편차 해소를 위해 선정 기준으로 지역 할당제(쿼터제)를 도입하는 것에 동의하며 평가 방법에 있어 남·북부 분리 평가와 함께 전시회 등 여성기업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 강화 등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업육성과 이명숙 팀장은 “실태조사 결과가 반영된 여성기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여성기업 마케팅 지원 사업은 선정 기준과 평가 방법에 경기 남·북부 편차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고 의원은 “여성기업 육성 5개년 계획 수립과 함께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경기도 의회 차원에서 지원에 적극 협력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김인창 기자



인천 부평구의회는 27일 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실에서 정예지 의원이 발의 예정인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 청취를 위해 정책 당사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인천 부평구의회)

자립준비청년 지원 관련 간담회 열어

인천 부평구의회 도시환경위

인천 부평구의회는 27일 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실에서 정예지 의원이 발의 예정인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 청취를 위해 정책 당사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김승길 대표, 자립준비청년 모임 아다주커뮤니티 조현수 대표, 부평구 아동복지과장, 아동시설장 등이 참석, 자립준비청년들의 현실적인 고민을 청취하고 조례와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자립준비대상아동

과 자립준비청년이 위탁가정과 양육 시설에서 자립,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아동정책과 관련한 여러 의제 중 특히나 자립준비청년 지원은 마을과 기초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자립준비청년의 건실한 자립과 안정적 생활을 위해 앞으로 지원 확대 및 정책 발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논의된 조례안은 다음달 4일 개최하는 제261회 부평구의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제출돼 심사할 예정이다. 김성용 기자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개정안 통과

박관순 인천시의원 대표 발의 “협력약국 지정규정 명확해야”

박관순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현행 조례는 달빛어린이

병원 근처에 있는 약국을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달빛어린이병원과 공공심야약국 운영시간은 연계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하며 “달빛어린이병원 협력약국 지정과 지원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평일 야간 시간대 및 휴일에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소아경증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인천시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을 말하는 인천시에는 현재 4곳이 운영 중이다. 상임위를 통과한 동 개정안은 다음달 8일 개최되는 제29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달빛어린이병원 협력약국은 야간 시간 및 휴일 운영으로 인해 통

상 시급보다 높은 인건비 부담이 있고 소아청소년과 조제의 특성 상 약사 1명으로 운영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례 개정을 계기로 달빛어린이병원 협력약국을 지원해 양질의 공공보건서비스가 제공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안중삼 기자

평택시의회 복지환경위 비교견학 나서

국립경주박물관 방문 평택박물관 조성 검토

평택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 경주시와 안동시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비교견학을 실시했다. 이번 비교견학은 김승겸 위원장, 김순이 부위원장, 이관우·최선자·김명숙 위원, 의회 공무원 등 10여 명이 함께했으며, 박물관과 문화관광단지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 역사문화자원 발굴과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고자 추진됐다. 복지환경위원회는 1일차인 26일 국립경주박물관을 방문해 지역문화유산 활용 및 보존방안과 박물관 프로그램 개발 등 우수사례를 살펴보고 평택

박물관 조성 사업과 관련해 접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했다. 2일차인 27일에는 컨벤션센터, 박물관, 테마파크가 결합된 안동시 한국문화테마파크를 방문했다. 위원들은 한국문화테마파크의 운영현황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3개 공간이 결합된 방식을 주목해 복합문화관광단지 개발 등 평택시 실정에 맞는 문화관광사업 정책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승겸 위원장은 “경주시·안동시의 우수사례를 통해 우리시의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이번 비교견학을 토대로 평택시가 국제적인 문화관광단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동훈 기자

학교운동장 개방... 매뉴얼 마련 시급

유종상 경기도의회 의원 문광부에 적극행정 강조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종상(민주당, 광명3) 의원은 27일 열린 제373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업무에 적극 행정을 당부했다. 유 의원은 “경기도 내 많은 시·군이 체육인프라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학교 체육시설 주민개방이 하나의 대안으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협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먼저 부서가 나서 개방 협조가 안되는 곳의 현황과 원인 파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경기도·경기도교육청, 각 시·군 체육회 등 관계기관이 MOU를 맺어 원활한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하며 “안전사고 우려 등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교가 많아 세밀한 매뉴얼 제작 등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 의원은 “학교가 운동부를 해체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학생들이 한순간에 운동선수의 꿈을 포기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경기도 학교체육 발전에 힘써달라”고 적극 행정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관광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지난해 경기도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로 발의한 후 관련 예산과 사업까지 추진되는 것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광명동굴과 같이 경기도의 야간관광 명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원활한 사업 추진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하며 마무리 했다. 김인창 기자

김선영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민주당, 비례·사진) 경기도의원이 지난 27일 '2024년 경제투자실 및 소관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공공기관의 내부 감사 기능 강화와 탄력적인 정권관리 운영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내부 감사는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으로 위험 관리, 내부 통제 등을 통해 조직 목표 완수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며 “그러나 내부 감사에 충분한 인력이 배치되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업무가 많아 내부 감사 기능이 원활히 작동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실시한 경기도 산하 27개 공공기관 특별점검 결과에 따르면, 공공기관 5곳에 자체 감사부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 인력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도 공공기관 감사 1인당 담당 직원 수 평균은 83명으로 특히 경기도경제과학원은 129명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내부 감사 기능이 정착되면 직장 내 괴롭힘 등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지난해 행정사무

감사 지적 사항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감사 인력 충원을 고려하는 등 공공기관 내부 감사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도 공공기관의 정권관리 문제점도 지적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경기도만 유일하게 공무원 정원과 연계해서 공공기관 정원을 관리하고 있다”며 “양질의 도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정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 공공기관 정원관리 담당 부서 등 관련 주체 간 정담회를 실시하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경기도 공공기관 조직 및 정원관리 지침”에 따르면 도 공무원 정원 증가율 범위 내에서 공공기관 일반정규직과 공무원(무기계약직) 정원을 관리하고 있다. 이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경기도만 공무원 정원과 공공기관 정원이 연계돼 있다. 김인창 기자

옥외광고 LED전광판

수도권 전역 광고주와 소비자를 직접 이어 드립니다.
서울시청·명동·동대문·종로3가·강남·홍대 등 다수지역 송출

문의 032)508-0006

일간경기 영상사업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337, 1147~1150호(청천동, 제이타워3차)